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악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난 11일 현대차 그룹사가 언론을 통해 41개 그룹사 전체 임직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운을 떼 왔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 사측은 우선 현대차 임단협 교섭에서 58세부터 10%씩 임금을 깎는 방안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현재 현대·기아차에선 정년 58세 이후 원하는 이들에게 59세에 임금 동결, 60세에 10% 정도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층 삭감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법적으로 정년 60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59세, 60세에도 호봉 테이블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사측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예 단협에 58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명시하려 한다.



임금피크제에 반대해 전면파업에 나선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협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투쟁을 조직해야

따라서 사측의 공격에 단호히 맞서 우리의 임금을 지켜야 한다.

현대차는 20차 교섭까지 진행했는데 (게다가 임금체계개선위원회 교섭까지 병행하고 있다), 사측은 우리를 우롱하며 연거푸 개악안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기아차 지부 집행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더는 교섭에만 매달리지 말고, 서둘러 쟁의를 결의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금호타이어지회는 임금피크제 반대와 워크아웃 기간 빼앗긴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17일부터 전면파업을 하고 있다. 우리도 투쟁으로 단호하게 사측에 맞서 임금 삭감 공격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통상임금 확대, 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등 요구를 따내야 한다. 이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사측에 맞서 잘 조직된 힘을 사용할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악은 정부의 “노동개혁”에서도 핵심 공격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8월 28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집회에도 적극 참가하자.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산 저지 8.28 집중행동

일시: 8월 28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광화문 세종로 공원

주최: 민주노총

청년 일자리를 위한다는 위선

사측은 그룹사 전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간 6백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 1천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 마냥 말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것일 뿐이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

아 놓고도 우리 임금 깎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무엇보다 사측은 그동안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를 강요하며 인력 확충 요구를 무시해 온 장본인이다.

더구나 법원조차 인정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에도 개무시와 탄압으로 일관

했다.

진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며 우리에게 양보를 압박할 게 아니라, 당장 사내하청·촉탁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인사고과 부활시키는 임금체계 개악

문제는 임금피크제뿐 아니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악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현대차 교섭에서 최근 제시된 안은 정기상여금 750% 중 450%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나머지 300%는 사고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

는 것이다.

더구나 사측은 기본급이 일부 늘어도 총액임금은 절대 늘릴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시급 산정시간 변경, 특근개선 지원금 폐지, 휴일연장과 연월차 할증

율, 2교대 전환수당 축소 등의 안을 내놨다.

요컨대, 통상임금 확대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짓밟고 사고고과까지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신입사원 임금 차별을 폐지시켜야 한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2013년 이후 입사자들에게 주간2교대 전환 시 신설된 심야보전 수당(주간2교대 전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아차에선 2011년 이후 신규채용자에게 호봉도 낮춰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심야보전 수당은 통상수당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이 넘는다. 이 수당이 생긴 것은 주간2교대가 시행되면서 생산량 만회를 전제로 UPH-UP이 됐기 때문인데, 신입사원들도 강화된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주간2교대 전환수당을 신입사원들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에선 11년 이후 입사한 화성 공장 신입 조합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여 대의원대회에 신입사원 임금 차별 폐지 요구안 채택

을 요청했다. 단 하루 만에 170여 명이 연서명에 동참했고, 그중 일부는 대의원대회장을 방문해 리플릿을 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일부 대의원들은 이런 요청에 적극 호응해 강력히 제기했고, 결국 대의원대회는 '8/8과 연동해 임금체계 개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결론지었다. 임금 요구안에 명확히 요구가 삽입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고참 대의원들의 호응은 정부와 사측이 차등 임금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임금을 하향평준화 하려는 시도가 현장에서 먹히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현장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하고, 임금피크제와 신입사원에 대한 임금 차별 모두에 맞서 싸워야 한다.



현대차 촉탁계약직 박점환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촉탁계약직 박점환 동지에게 부당하고 판정을 내렸다. 박점환 동지는 무려 16차례 '쪼개기' 계약으로 고통 받았는데, 23개월 만에 해고를 당해 이에 맞서 투쟁해 왔다. 중노위 판정은 이런 투쟁의 소중한 성과다.

중노위는 현대차 사측에게 박점환 동지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특히 사측이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기간제법의 의무 조항을 회피하려고 일부러 해고했다고 봤다. 따라서 박점환 동지는 이제

정규직으로 복직돼야 한다.

현대차 사측은 그동안 촉탁직 노동자들을 2년 전에만 자르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여겼다. 쪼개기 계약을 통해 많은 촉탁직 노동자들이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가리려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옳게도 이런 꼼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이번 중노위 판정은 현대차에서 매년 기간제한 2년이 되기 전에 시행되는 수많은 촉탁직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들

이 정규직 전환 대상일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박점환 동지는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동료 노동자들을 조직화 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이런 촉탁직의 요구와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야 한다.

지부는 더는 미적대지 말고 박점환 동지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촉탁직 정규직화와 조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활동가들이 이를 촉구하며 연대를 조직해 나가자.

현대차

1공장 안전 투쟁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하라

지난달에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 노동자들은 11일 동안이나 생산을 멈추고 안전사고 대책을 요구하며 싸웠다. 이는 현대·기아차 곳곳에서 안전대책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라인부터 돌리려 해 온 사측에 맞선 중요한 투쟁이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사고' 규정 문제 등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룬 채, 생산 가동부터 재개하는 합의서에 사인했다.

이후 사측은 본격적으로 1공장 11라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보복 탄압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돼, 임금이 30퍼센트 이상 삭감됐다. 투쟁을 주도한 대의원·활동가들 8명에 대한 징계, 손배가압류, 고소고발도 진행됐다.

아쉽게 타협한 1공장 사업부위원회가 "무노동무임·징계 최소화"를 약속 받았지만, 사측은 그럴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휴가 전후로 1공장 공동현장조직위원회는 특근 거부 등 투쟁을 호소했다. 이는 옳고 필요한 제기다. 1공장 사업부위원회는 사측의 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기아차 현장공투 활동가 고소고발, 고공농성자 해고 철회하라

기아차 현장공투투쟁 활동가들은 지난 5~6월 사측과 노조 집행부의 8/8 양보교섭을 막고, 5·12 신규채용안을 폐기하기 위해 투쟁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교섭장 앞에서 농성하고 있던 활동가들에게 폭력까지 자행했다. 더구나 적반하장으로 보복 탄압도 예고했다.

이에 활동가들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안으로 발의했고, 이것이 통과됐다. 집행부의 8/8 양보안도 대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폐기됐다. 김종석 지부장이 "3무 원칙에 기반한 8/8을 쟁취하겠다"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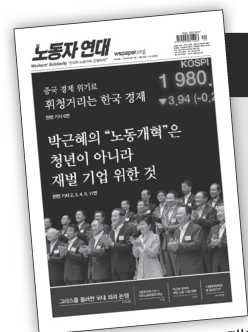
차례 약속을 해 관련 요구안이 임금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는 현장공투 활동가들의 투쟁이 다수 조합원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사측은 결국 9명을 고소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다행히 대대 결의가 있었기에, 지부가 사측에 항의해 징계위원회가 연기됐다.

반면, 사측은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분회 간부 2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이 경우 노조 동의 없는 해고가 명백한 단협 위반인데도 말이다.

사측이 단협을 깬 무시하고 징계를 밀어붙인 것은 불법파견 투쟁의 확산을 막고,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따라서 지부 집행부는 분회 간부 해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런 탄압에 가장 효과적인 반격은 위촉되지 말고 조합원들과 함께 저항을 건설해 가는 것이다. 현장공투는 최근 사장, 공장장, 노무담당 등 관리자 10여 명을 폭력과 노동조합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탄압에 맞선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항의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 정동석(현대차, 010-8363-5695), 김우용(기아차, 010-3092-9003)